

<2018.1학기 전임교원 공개초빙 공고용>

지원자를 위한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

학과	환경안전공학과	초빙분야 (한글 및 영문)	유해물질안전 및 신재생에너지 (Hazardous substance safety and Renewable energy)
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

▪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

○ 환경공학 전공은 1982년 개설된 이후 35년 이상 환경공학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당면한 환경문제와 사전 예방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. 2014년 환경규제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2016년 1학기부로 환경공학외에서 환경안전공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였다. 이번에 안전분야에서 기존의 전통 환경공학과 가장 시너지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유해화학/생물학 물질안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임교원 1인을 초빙함으로써, 교육과정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, 환경안전공학 전공의 기존 교수진 및 타 전공분야와의 활발한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.

○ 단기 발전계획(5년:2017 ~ 2021)

학부 및 대학원생의 미래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의무감을 전공교수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여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하고 강의와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. 국내외의 환경정책과 이에 따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학술회의 및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이주대학교의 위상제고에 일익을 담당한다. 현재 환경안전공학과의 전임교원 7인 중 3인이 이 기간 내에 정년퇴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, 기존교원 퇴임에 의한 우수한 신입교원의 충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. 새로 임용될 교원들로 하여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전공 내에서 이들이 교육·봉사와 관련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학과에 정착하도록 하고자 한다. 우수한 교원의 초빙을 통해서 교육 및 연구측면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○ 장기 발전계획 (10년:2017 ~ 2026)

환경안전공학 전공의 장기적 발전계획(향후 10년 이내)은 본교의 비전인 이주비전 2023과 연계하여 이에 일조할 뿐 아니라 국내외 선도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. 이를 위하여 전임교수 8명, 학부생은 학년 당 38명, 대학원생은 전일제 대학원생 3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졸업생 수요에 맞춘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연구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전공의 위상을 높이도록 한다.

○ 본 전공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의 방침인 어학졸업인증제를 따르고 있다.

○ 전공 교원들 대부분이 전공강의를 원어강의로 수행해 왔고, 이로 인해 전공의 원어강의 비율은 교내 타전공과 경쟁학교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. 실험실습이나 일부 원어강의가 곤란한 과목을 제외하고도 원어강의로 진행하는 비율은 약 50%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
○ 전공 내 승진/재계약임용 기준

환경안전공학 전공의 승진/재임용/성취승격 기준은 공과대학에서 제시하는 승진/재임용/성취승격 기준을 반영하여 전공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.

■ 신입교원 활용방안(기대 사항 등)

- 유해물질 안전분야의 학부 강의 개설
- 위해성, 다매체저동 및 통합 위해성관리 등의 대학원 강의 개설
- 에너지안전관리 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 강의 개설
- 기존 교수진과의 협력 연구를 통한 연구 시너지효과 창출
- 졸업생의 취업에 있어 사회적 수요가 큰 유해화학물질 평가관리, 에너지안전관리 분야의 우수 엔지니어 양성

■ 지원자 최저경력 및 연구업적

- 초빙 분야 관련 공학 박사학위 소지자
- 박사후 과정 2년이상 우대
- 최근 5년간 SCI(E)급 연구 논문 6편 이상. 이중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3편 이상인 자.

■ 학과 연락처

성 명 : 이은경
전 화 : 031-219-1531
팩 스 : 031-219-1613
이메일 : eunkl@ajou.ac.kr